

## 강릉지역건축사회 '희망 나눔 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강릉지역건축사회(회장 김보규)는 지난 1월 24일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성금' 200만 원을 강릉시청 최명희 시장에게 전달했다.



## 원주지역건축사회,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기탁

강원도건축사회 소속 원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진)는 지난 1월 7일 원주시청을 방문하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성금' 300만 원을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기탁했다.



##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 정기총회 개최

제3회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강성익)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1일 14시 건축사회관 1층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총 출자좌 49,538좌 중 28,499좌(57.5%) 참석으로(위임 26,906좌, 출석 1,593좌) 열렸으며, 상정된 5개의 안건 중 '제1호 의안, 공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 2012년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제4호 의안, 차입금 상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상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제5호 의안, 운영위원 선출의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전임 회장(이외규, 이철호, 최영집)과 이사장(강성익)으로 운영위원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위원의 선임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강성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조합 출범 2년 만에 당기순이익 2억5천4백여만 원, 조합원 4,500개사, 출자금 49억여 원, 수수료수입 22억 원 여의 실적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히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조합원에게 배당금의 지급 및 출자

지분의 상승으로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중 윤세한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정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문박디자인컴퍼디엠펜 대표이사와 김혁 대표이사, 박형배 (주)토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오영모 (주)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영미 (주)건축사사무소 정건사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 건축계소식

### '건축사한옥연구회' 창립



대한민국 전통건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건축사한옥연구회'가 지난 1월 29일 건축사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총회를 열고 창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한옥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건축사 50여명이 참석해 연구회 초대회장이

로 민경철 건축사(다솜 건축), 부회장 조병섭 건축사(엘도 건축), 정현미 건축사(주.열림 건축)를 선출해 앞으로 2년간 연구회를 이끌도록 했다.

건축사한옥연구회는 건축사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며, 회원 간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한옥설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가집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고 대한민국 전통건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또한 연구회는 국내의 한옥 답사, 세미나(자체, 초청), 워크숍, 전시회 개최, 한옥 관련 정책제안, 교육자료 및 보고서 작성, 수익사업(현상설계 및 연구용역), 대학생워크숍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사한옥연구회 네이버카페(cafe.naver.com/kirahanok)와 총무인 천국천 건축사(010-7408-7807)에게 하면 된다.

## 류춘수 드로잉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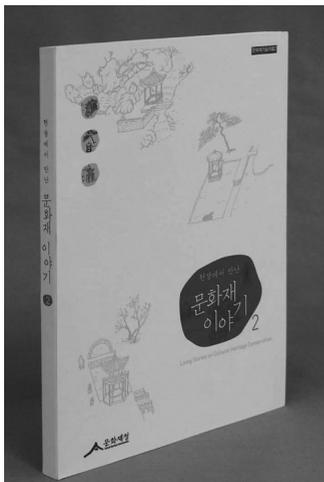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프랑스 파리문화원에서 류춘수 건축사의 '류춘수 드로잉'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붓을 이용한 동양예술의 특징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동서양 건축의 차이 및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회화작품들과는 다르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분야의 드로잉임에도 불구하고 류춘수 건축사의 드로잉 작품은 높은 예술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그는 수년간 국가건축정책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2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문화재청,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 발간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이야기와 다양한 문화재 정보를 담은 '현장에서 만난 문화재 이야기' 2집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 기법과 양식,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공법 등 국내의 문화재 현장 속 이야기와 함께 수리 관련 법령, 문화재 관련 용어 등을 해설 수록했다. 더불어 문화재 일선 현장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 수리업체 현황 등도 함께 실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전문을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 신간안내

### 길들이는 건축 길들이진 인간

이상현 지음 | 312쪽 | 효형출판

이 책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공간을 음미하는 건축의 미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축은 본질적으로 편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그 속에 사람들을 교묘히 길들이려는 사회학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이야기한다.

'길들이'와 '길들이진'이라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양반집에서부터 궁궐과 도성(都城), 현대 도시와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간과해온 건축의 실체를 역설한다. 더불어 우리가 몰랐던, 또는 외면해왔던 건축의 또 다른 낯선 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새로운 시선의 건축 읽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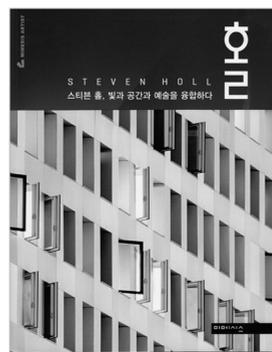
1부「건축으로 길들이기」에서는 사회적 이념에 봉사하는 건축을 다룬다. 저자는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 공간 그리고 전통 건축에서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건축이 길들이기를 수행하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와 건축적 기법을 들어 설명한다.

2부「건축으로 길들이지 않기」에서는 건축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인간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건축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사회적 이념에 맞서고, 건축물을 매개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지를 고찰한다.



### 홀: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스티븐 홀 저, 이원경 역 | 416쪽 | 미메시스



이 책은 세계적 건축사와 작품을 소개하는 「미메시스 아티스트 시리즈」에 프랭크 게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루이스 칸, 안도 다다오에 이어 스티븐 홀이 추가돼 발간된 것으로 현상학 건축으로 알려진 스티븐 홀이 직접 소개하는 24개의 프로젝트가 들어 있다.

그가 직접 엄선하여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에는 그의 건축에 관한 이론 및 건축 진행 과정은 물론 작업 방식, 영감을 얻는 원천, 그리고 의뢰인들과의 관계 조율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단순히 외적인 형태로서 건축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글과는 차원이 다른, 건축사와 건축의 진정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프로젝트마다 자세한 설계도와 사진이, 그리고 그가 직접 그린 수채화가 수록되어 있다.